

협동동료교수학습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융합적 효과

정인숙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Convergence effects of collaborative peer tutoring on communication ability and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In-Sook Jung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od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협동동료교수학습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융합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10회의 협동동료교수학습 전후 의사소통능력과 셀프리더십 조사 결과를 SPSS/WIN 19.0으로 시행한 Mann-Whitney U와 Kruskal-Wallis 검정 결과, 의사소통능력은 실험 전후 성격유형, 토론선호 및 리더역량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셀프리더십은 간호학과 입학동기, 리더역량 및 학교성적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처치 전후 의사소통능력과 셀프리더십 간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Wilcoxon 부호순위검정 결과, 협동동료교수학습은 의사소통능력과 셀프리더십을 각각 유의하게 증가시켰다($p=.008, p<.001$). 본 연구 결과 협동동료교수학습은 간호대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과 셀프리더십 향상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을 개발을 위해 적용가능한 효과적인 학습법으로 볼 수 있고, 대상자 수를 확대하고 대조군을 둔 실험연구를 제안한다.

주제어 : 협동동료교수, 간호대학생, 의사소통능력, 셀프리더십, 융합

Abstract This study is to find convergent effects of collaborative peer tutoring on communication ability and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Mann-Whitney U and Kruskal-Wallis test using SPSS/WIN 19.0 for the survey of communication and self-leadership before and after experimen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f personality type, discussion preference and leadership in communication, and of motive of admission, leadership and school grades in self-leadership.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communication and self-leadership before and after treatments. The results of Wilcoxon signed ranked test showed cooperative peer tutoring increased communication ability and self-leadership significantly each($p=.008, p<.001$). These results could be used in developing intervention programs for enhancing communication and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after further studies with wider range of subjects and setting control group.

Key Words : Convergence, Collaborative peer tutoring, Communication ability, Self-leadership, Nursing students

1. 서론

고등학교 때와는 달리 대학 입학 후부터 대학생들의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학생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 특히 간호대학생들은 입학 직후부터 이수해야 할 과도한 학과목에 대한 큰 부담을 갖는다[1,2]. 또한 교내입상실습 이후에는 외부입상 실습과정에서 타학과와는 달리 학생신분이지만 사회인

*Corresponding Author : In-Sook Jung (irisleejung@naver.com)

Received July 30, 2018

Accepted October 20, 2018

Revised September 18, 2018

Published October 28, 2018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가중된다[3]. 따라서 간호학 교육과정에서 간호대학생의 이러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협동동료교수학습은 동일한 주제에 관심이 있는 동년 배들 간 가르치고 배우는 학습법으로 교육계에서 효과적인 학습법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는데, 동료학습자들은 실제 교수자에 의한 학습에서보다 흥미있고, 스트레스가 적으며, 좀 더 심도있는 학습을 할 수 있었다고 보고한다[4,5]. 동료교수자는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조직하는 데에 시간을 할애해야 하지만 실제 교수과정에서 스스로 배우게 되는 장점이 있다[6].

특히 임상간호에서 의사소통능력은 임상수행능력에 유의한 예측 요인으로 언급되는데, 협동동료교수과정을 통해 의사소통에 자신감이 증가되었다는 보고는 이 학습법 적용 시의 기대효과를 시사한다[4,7].

또한 개인이 목표달성을 위해 행동과 생각을 조절하고 자신에게 동기부여를 통해 노력하는 과정인 셀프리더십은 임상간호에서 업무성거나 수행 및 직무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협동동료교수학습은 간호사가 되기 전에 임상술기를 학습하고 교육자로서의 리더십을 연습할 수 있는 유용한 학습법이었고 자기조절에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는 과중한 이론학습과 실습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간호대학생들에게 협동동료교수학습을 통한 셀프리더십 증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1,4,8].

협동동료교수학습이 국외에서는 의학이나 간호학분야 학습에서 흔히 적용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장애 학생이나 실기관련학과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간호학에서의 적용 예는 드문 실정이다[9]. 이에 본 연구는 협동동료교수학습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과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융합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1.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에게 적용한 협동동료교수학습이 의사소통과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융합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고 다음의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 협동동료교수학습은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협동동료교수학습은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협동동료교수학습법 적용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융합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단일군 원시실험설계로 진행되었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7년 9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C도 내의 C대학교 간호학과 1학년 중 1분반 학생들로서 다음 선정기준에 부합한 자이다.

- 기초간호과학 중 M과목을 수강신청한 자
-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내용을 이해하는 자
- 본 연구의 중재프로그램인 협동동료교수학습법을 이해하고 수업 시 적용할 의사가 있는 자
- 본 연구의 참여동의서에 서면으로 동의한 자
-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으로 단일군 원시실험설계의 처치 전후 평균 비교를 위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50, 검정력(1-β) .80 으로 설정하였을 때 34명이 산출되었고, 본 연구의 최종대상자 수는 52명이었으므로 표본 수는 적절하였다.

2.2.1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자료 수집 전 대상자들에게 M과목 수업 중 협동동료교수법 적용의 장법, 적용방법 및 진행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의사소통능력과 셀프리더십 관련 설문조사 및 개인별 평가, 동료평가 및 이해도 평가 시행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수거된 관련 설문지와 학과목 관련 평가자료는 각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부여된 번호로 처리함으로써 익명성이 유지될 것과, 제반 자료는 연구자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할 것 및 모든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알린 후,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한 자에 한하여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에게 본인이 연구 진행 중이라 할지라도 연구참여 철회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연구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알리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10회의 협동동료교수학습의 실행과, 의사소통능력과 셀프리더십 측정용 설문지로 구성되었다.

2.3.1 협동동료교수학습

연구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들에 의해 2학점의 M학과목 수업 2시간 중 30분씩 15주간 10회에 걸쳐 시행되었다. M학과목 학습에 고등학교과정의 생물학습이 필수적이지만 생물 미이수 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므로, 매 수업 전 협동동료교수학습법을 적용함으로써, 본 연구의 목적인 의사소통능력이나 셀프리더십의 변화 외에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동료교수로 학과내용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하였고 다음의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 조 구성 : 본 연구 시작 직전 학기 기초간호과학 과목 중, 본 M학과목과 관련성이 깊은 A학과목 성적을 기반으로, 조원들의 평균성적이 거의 균일하게 5인 1조로 구성하였고, 구성된 조원 간 동료관계의 부적절함이 없도록 점검하였다.
- 협동동료교수 내용 : 10회의 협동동료교수학습으로 모든 학생들이 지난 주 M학과목 담당교수자 강의내용을 숙지하고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 동료교수자 훈련 : M학과목 담당교수는 매 수업 직후 핵심내용, 교수활동 시 주의점을 다음 주 동료교수자들에게 알려주었다.
- 학습과정 :
 - 매주 1인의 동료교수자와 4인의 학습자로 구성되며, 모든 구성원은 교수자 2회, 학습자 8회의 역할을 교대로 수행하였다.
 - 교수자는 매 수업 직후 담당교수가 제공한 핵심내용을 복습하여 다음 주 협동동료교수 시 학습자 4인의 질문내용에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협동동료교수를 시행하며 필요시 상호토론을 겸하여 시행하였다.
 - 동료학습자는 협동동료교수학습 시 담당교수의 지난 주 수업내용 중 질문사항을 동료교수자에게 질문하고 필요시 상호토론으로써 배운다.
- 평가 : 매회의 협동동료교수학습 시행 후 적극적인 참여로 실험처치의 시행을 강화시키기 위해 개인별 평가와 동료평가 및 이해도 평가를 시행하였다.

2.3.2 설문도구

·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은 허경호(2003)의 ‘포괄적인 대인 의사소통 능력’을 이현숙(2010)이 수정보완한 15문항의 5점 Likert도구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10,11]. 허경호(2003)의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72이었고, 이현숙(201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768 이었다.

· 셀프리더십

Manz(1998)의 SLQ(Self-Leadership Questionnaire)를 김민정(2007)이 변안한 30문항의 도구를, 이정선(2012)이 대학생에 맞게 조정한 23문항으로 구성된 셀프리더십 설문도구로, 본 연구에서는 하위영역인 9문항의 행동적전략, 14문항의 인지적전략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Likert식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1]. 이정선의 연구(2012)에서 Cronbach’s α 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0이었다.

2.4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은 2017년 9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선정 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시작 시 대상자는 총 55명이었으나 자료수집 후 부실한 설문 3부를 제외하여 최종 5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사전측정은 협동동료교수학습을 시행 전에 일반적 특성, 의사소통능력과 셀프리더십 내용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실험과정은, 전술한 연구도구 중 2.3.1 협동동료교수학습으로 진행하되, 총 10회 중 각각 5회와 10회의 협동동료교수 수행 후 협동동료교수범위내용 중에서 출제된 지필고사를 시행하였다. 사후측정은 2차의 지필고사가 마쳐진 후 사전측정 설문지와 같은 내용으로 의사소통능력과 셀프리더십을 측정하였고, 표본 수가 각 집단으로 나뉠 경우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없으므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9.0으로 대부분 비모수검정을 시행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특성은 기술통계를 시행하였고, 일반적특성에 따른 학업수행도는 집단별 평균분석을 시행하였다.
- 일반적특성에 따른 각 변수들의 평균순위값은 Mann-Whitney U 검정과 Kruskal-Wallis 검정으로 구하였다.
- 협동동료교수학습이 의사소통능력과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은 Wilcoxon 부호순위 검정을 시행하였다.
- 실험 전후 의사소통능력과 셀프리더십의 상관관계는 Spearman’s rho로 비모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학업수행

연구대상자 52명의 평균연령은 18.7±0.45세이었고, 그 중 여학생이 73.1%, 입학동기는 ‘적성에 맞추어’가 57.7%, 주관적 학교성적은 ‘중’이 61.5%, 성격유형은 ‘중간’이 38.5%, 리더역량은 ‘중간’이 61.5%이었고, 토론선호도 ‘중간’이 42.3%로 가장 많았다. 연구대상자 전체의 학업수행점수는 54.6±8.01점이었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고, 적성에 맞추어 입학한 경우, 주관적 학교성적이 높은 경우, 성격유형에서는 ‘중간’이, 리더역량이 높은 경우와 토론선호도 ‘중간’인 경우에 높았다(표1).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들의 평균 순위값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들의 평균순위값을 구하기 위해, Mann-Whitney U검정과 Kruskal-Wallis 검정을 각각 시행한 결과, 실험 전 의사소통능력 중 성격유형과 토론선호에서, 실험 후 의사소통능력 중 성격유형, 리더역량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셀프리더십은 실험 전에는, 간호학과 입학동기와 리더역량에서,

실험 후에는 주관적 학교성적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2).

Table 1. Academic performa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52)

Characteristics	Division	N (%)	Academic performance [*]
Age(year)		18.7(0.45) [*]	54.6(8.01)
Sex	Female	38(73.1)	56.2(7.36)
	Male	14(26.9)	50.2(8.30)
Motive of admission	to match Grade	5(9.6)	54.6(8.00)
	to fit Aptitude	30(57.7)	55.7(8.18)
	consider Job opportunity	17(32.7)	53.0(7.54)
School grades	High	7(13.5)	63.1(4.41)
	Medium	32(61.5)	53.9(7.32)
	Low	13(25.0)	51.9(8.71)
Personality type	Introverted	17(32.7)	52.9(8.51)
	Middle	20(38.5)	55.6(7.54)
	Extrovert	15(28.8)	55.1(8.28)
Leadership	High	8(15.4)	60.3(6.69)
	Medium	32(61.5)	52.3(7.30)
	Low	12(23.1)	57.1(8.52)
Prefer discussion	High	9(17.3)	54.8(7.31)
	Medium	22(42.3)	55.2(8.53)
	Low	21(40.4)	52.6(8.82)

^{*}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2. Mean ranks of variab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52)

Characteristics	Division	N	Communication ability						Self-leadership					
			Pre-experiment			Post-experiment			Pre-experiment			Post-experiment		
			Mean rank	Z or χ^2	p	Mean rank	Z or χ^2	p	Mean rank	Z or χ^2	p	Mean rank	Z or χ^2	p
Sex [*]	Male	14	21.68			21.64	-1.399	.162	26.54	-0.10	.992	26.04	-1.134	.893
	Female	38	28.28			28.29			26.49			26.67		
Motive of admission [*]	to match Grade	5	24.70			13.80			23.30			16.50		
	to fit Aptitude	30	30.33	6.398	.086	28.62	1.854	.396	31.37	7.664	.022	30.48	5.507	.064
	consider Job opportunity	17	20.26			26.50			18.85			22.41		
School grades [*]	High	7	24.43			21.50			24.43			37.93		
	Medium	32	25.31	.563	.241	28.08	1.742	.419	25.31	2.200	.333	25.64	6.503	.039
	Low	12	28.75			23.08			28.75			20.00		
Personality type ^{**}	Introverted	17	18.00			13.88			25.53			22.82		
	Middle	20	25.38	13.688	.001	29.03	20.300	<.001	24.90	.978	.613	27.90	1.522	.467
	Extrovert	15	37.63			37.43			29.73			28.80		
Leadership ^{**}	High	8	35.94			40.69			37.56			37.50		
	Medium	32	26.63	5.451	.065	25.78	10.132	.006	26.02	6.244	.044	25.88	5.969	.051
	Low	12	19.88			18.96			20.42			20.83		
Prefer discussion ^{**}	High	21	21.19			20.98			24.60			23.76		
	Medium	22	32.95	7.088	.029	31.41	5.168	.075	29.70	1.770	.413	27.05	1.722	.423
	Low	9	23.11			27.39			23.11			31.56		

^{*} Mann-Whitney U test, ^{**} Kruskal-Wallis test

3.3 가설검증 : 협동동료교수학습이 의사소통능력과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간호대학생들에게 적용한 협동동료교수학습의 효과를 보기 위해 Wilcoxon 부호순위 검정을 실시한 결과, 협동동료교수학습 시행 전 보다 시행 15주 후의 의사소통능력이 유의하게 증가되었다($Z=-2.659, p=.008$). 또한 협동동료교수학습 시행 전후 체크한 셀프리더십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Z=-4.004, p<.001$), 셀프리더십의 하위 영역인 행동적 전략과 인지적 전략에서도 각각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Z=-4.069, p<.001$)($Z=-2.546, p=.011$) (표 3).

Table 3. Effects of peer tutoring on communication ability and self-leadership (N=52)

Variables	Division	M(SD) ¹	Mean rank	Total rank	Z	P
Communication ability	Pre ¹	3.57(0.32)	27.31	846.50	-2.659 ²	.008
	Post ²	3.66(0.31)				
Self-leadership	Pre ¹	3.44(0.33)	25.74	978.00	-4.004 ²	<.001
	Post ²	3.63(0.29)				
Behavioral strategy	Pre ¹	3.51(0.42)	24.36	877.00	-4.069 ²	<.001
	Post ²	3.78(0.36)				
Cognitive strategy	Pre ¹	3.39(0.42)	27.47	934.00	-2.546 ²	.011
	Post ²	3.53(0.37)				

¹ M(SD) : Mean(Standard Deviation), ¹ Pre-experiment,

² Post-experiment, Wilcoxon Signed Ranked Test

3.4 실험 전후 의사소통능력과 셀프리더십의 상관관계

협동동료교수학습법 시행 전후 조사한 의사소통능력과 셀프리더십 간의 관계를 비모수로 검정한 결과, 협동동료교수학습법 시행 전후 두 변수 간 각각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402, p=.003, r=.362, p=.008, r=.537, p<.001$)(표 4).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Division	Communication ability	
	Pre ¹	Post ²
Self-leadership	Pre ¹	.402 ^{**} (.003)
	Post ²	.362 ^{**} (.008) .537 ^{**} (.001)

^{**} $p<.001, ^*$ $p<.005, ^1$ Pre-experiment,

² Post-experiment, Spearman의 rho

4. 논의

본 연구에서 실험처치로 10회 시행된 협동동료교수학습은 일개 대학의 한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로, 동일한 실험처치와 유사한 학업수행 조사도구로 학업수행을 조사한 연구가 없어 그 결과를 비교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의 학업수행 비교는 본 연구대상자 내의 분류에 따른 비교로 한정하였고 일반적인 논의는 의사소통과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 전체의 평균 학업수행은 70점 만점에 54.6±8.01점으로 78%의 수행도를 보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수행의 차이에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수행도가 높았는데, 이는 본 연구와 도구나 대상자에 있어 차이는 있지만, S시 소재 일반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여학생의 학업수행도가 남학생에 비해 높았다는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는데, 구성원 중 다수가 여학생으로 이루어진 간호학과에서 남학생의 학업수행 관련 요인을 점검하여 보완할 필요를 시사한다[12]. 또한 입학동기별로는 적성에 따라 간호학과를 선택한 학생과 리더역량이 높은 경우 학업수행도가 높았지만 유사한 연구결과가 없어 비교할 수 없었고, 주관적 학교성적이 높은 학생의 학업수행도가 높았는데 이는 학교성적 '상' 집단의 학업수행도가 높았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였다[9].

본 연구에서 협동동료교수학습 전 의사소통능력은 3.57±0.32점으로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 임상간호사대상 연구에서의 3.61±0.35점보다는 낮았고 간호학과 신입생대상의 조사연구의 3.52±0.39보다는 높은 결과였다[9,13]. 본 연구에서 토론선호도가 높은 대상자의 의사소통순위가 앞섰는데, 이는 토론을 좋아하는 대상자의 의사소통평균이 더 높았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였다[9]. 내향적인 학생의 의사소통순위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외향적인 대상자의 의사소통평균이 내향적인 경우보다 더 높았다는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로 연구도구를 달리하거나 대상자 수를 확대하여 반복연구를 시행하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험 전후 리더역량이 낮은 집단의 의사소통순위가 앞선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리더역량에 따른 의사소통에 차이가 없었다는 보고와도 다른 결과였다[9]. 협동동료교수학습 이후 의사소통능력평균은 3.57±0.32점에서 3.66±0.31으로 증가하였지만 표본 수의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없어 각 변수들의 변화를 비모수검정으로 평균순위값을 구한 결

과, 협동동료교수학습 전후 의사소통능력의 평균순위값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협동동료교수학습과정을 통하여 대상자들의 의사소통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고, ‘협동동료교수학습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간호학과 3, 4학년 대상의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은 임상수행능력에 유의한 예측요인이었고, 임상간호사 대상의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이 조직성과의 예측요인이었다는 연구결과 및 의사소통기술과 주관적 행복감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재학기간 중 의사소통기술 향상을 위한 방안이 간호학과 교육과정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7,13,14]. 본 연구에서 10회의 협동동료교수법 적용으로 간호대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단일연구로 효과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향상을 위해 반복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실험처치 전후 셀프리더십의 평균이 3.44 ± 0.33 점에서 3.63 ± 0.29 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Wilcoxon 순위검정에서도 처치전후 순위값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인 행동적 전략과 인지적전략의 분석에서도 모두 순위값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p < .001$, $p = .011$), 협동동료교수학습이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향상을 도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협동동료교수학습이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자의 실험처치 후 셀프리더십 점수가 향상되었지만 같은 도구를 사용한 3, 4년제 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의 3.73점보다 낮았고,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간호학생대상의 셀프리더십 조사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이 각각 3.40과 3.35점이었다는 결과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8].

셀프리더십 평균순위값 비교를 위한 Kruskal-Wallis 검정에서, 실험처치 전에는 취업을 고려하여 간호학과에 입학한 경우와 리더역량이 낮은 경우, 실험처치 후에는 주관적 학교성적이 낮은 경우 셀프리더십의 평균순위값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리더십교육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이 높았다는 결과와는 반대의 결과일 뿐 아니라, 셀프리더십이 행동적, 인지적 전략을 바탕으로 자기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과정이므로 예기치 않은 결과이어서 이에 대한 요인을 찾기 위한 반복연

구가 필요하다[1]. 셀프리더십은 대학생활만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고 셀프리더십이 높은 집단일수록 문제해결능력과 임상수행 및 비판적 사고능력이 유의하게 높았다[3,15].

의사소통능력과 셀프리더십의 비모수 상관관계 분석에서 협동동료교수학습법 시행 전후 두 변수 간 각각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의사소통능력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는 결과와 같은 결과였다[8]. 의사소통능력과 셀프리더십의 향상은 간호대학생들의 학업이수는 물론 임상실무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이들 능력의 향상 방안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간호대학생들에게 적용한 협동동료교수학습이 의사소통능력과 행동적, 인지적 전략을 포함한 셀프리더십의 향상을 도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동동료교수학습은 강의실 내에서 동료교수자와 동료학습자 간 소외되거나 수업에 저항감을 보이는 학생이 없이 친근하고 부담없이 수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자유로운 의사소통 과정 중에 서로를 이끌어가며 돕는 효과적인 학습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5,16].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 이론학과목 학습은 물론, 임상실습과정에서부터 대상자를 위한 교육자로서 준비되어야 하는 간호대학생들에게 필수적인 의사소통능력과 셀프리더십에 협동동료교수학습 적용이 미치는 융합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된 원시실험연구이다.

실험처치로 시행된 10회의 협동동료교수학습 중 2회의 학업수행평가와 실험처치 전후 의사소통능력과 셀프리더십을 조사한 결과, 의사소통능력은 실험 전후 성격유형, 토론선호 및 리더역량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셀프리더십은 간호학과 입학동기, 리더역량 및 학교성적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처치 전후 의사소통능력과 셀프리더십 간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Wilcoxon 부호순위검정 결과, 협동동료교수학습은 의사소통능력과 셀프리더십을 각각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본 연구는 간호학 교육과정과 연구에서 적용사례가 극히 드문 협동동료교수법을 이론 학과목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본 실험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으

나 대조군이 없는 원시실험설계로 그친 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론학과목은 물론 임상실습학과목에서도 적용하여 다양한 변수들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안하며, 특히 대상자 수를 확대하고 대조군을 둔 유사실험연구를 통해 실험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J. S. Yi & K. A. Kim. (2012).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Self-Leadership on the Employment Strategies.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6(2), 19-39.
<http://www.earticle.net/article.aspx?sn=175537>
- [2] I. S. Jung. (2016). The Converging Effects of Complete Science Subjects in High School on the Grades of Basic Nursing Sciences and Major Nursing Subjects of Nursing Students of one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7(5), 97-106.
<http://dx.doi.org/10.15207/JKCS.2016.7.5.097>
- [3] Y. S. Lee, S. H. Park & J. K. Kim. (2014).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 College Life Satisfaction. *The Korea Contents Society*. 14(6), 229-240.
<http://www.riss.kr/link?id=A100031648>
- [4] M. Ravanipour, M. Bahreini & M. Ravanipour. (2017). Exploring nursing students' experience of peer learning i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Education and Health Promotion*. 4, May 2015. <http://www.jehp.net> on Thursday, July 27, 2017, IP: 210.125.253.4
- [5] K. Iwata, D. S. Furnedge, A. Sturrock & D. Gill. (2014). Do peer-tutors perform better in examinations? An analysis of medical school final examination results. *Medical Education*. 48(7), 698-704.
doi: 10.1111/medu.12475
- [6] Y. H. Kim, I. S. Kweon, K. D. Kim, K. M. Park, H. S. Park, H. S. So, W. S. Lee, K. s. Chang, B. R. Jeong & E. H. Choi. (2016).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ies : Cases in nursing education*. Seoul : Fomurse.
- [7] M. O. Kim. (2016). Study on Self-efficacy, Communication competenc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6), 609-617.
http://data.riss.kr/sam_lod/resource/DomesticArticle/103299328
- [8] J. Y. Choi. (2016). *Study on Factors Affecting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Eulji University, Daejeon.
- [9] H. K. Cho & I. S. Jung. (2018). A study on the communication ability, general self-efficacy, social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freshmen.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3), 45-52.
<http://www.earticle.net/article.aspx?sn=331760>
- [10] G. H. Hur. (2003).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47(6), 380-408.
<http://www.riss.kr/link?id=A76210199>
- [11] H. S. Lee & J. K. Kim. (2010). Relationship among Communication Competence, Communication Type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6(4), 488-496. <https://doi.org/10.1111/jkana.2010.16.4.488>
- [12] H. J. Kim & O. B. kim. (2016). Gender Difference in Academic Achievement, Perceived Learning Outcomes, Self-directed Learning Engagements, and Social Interactions among Colleg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6(10), 63-72.
www.sersc.org/journals/AJMAHS/vol6_no10_2016/6.pdf
- [13] Y. B. Lee & M. S. Ko. (2015). The Effect of Clinical Nurses' Communication Competency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21(3), 347-354.
<http://www.riss.kr/link?id=S11655565>
- [14] M. J. Park & D. N. Oh. (2017). Effects of Communication Skill on Interpersonal Satisfaction and Subjective Happiness among College Students. *The Korea Contents Society*. 17(11), 423-434.
<http://www.riss.kr/link?id=A103871178>
- [15] K. E. Lee & E. H. Choi. (2017). Pre-Post Simulation Training on Problem solving, Performance confidence and Critical thinking Skill in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Degree of Self-leadership.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23(1), 66-75.
<http://www.riss.kr/link?id=A102875984>
- [16] Y. Palsson, G. Martensson, C. Leo, S. E. Adel & M. Engstrom. (2017). A peer learning intervention for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education: A quasi-experimental study. *Nurse Education Today*. 51, 81-87. doi: 10.1016/j.nedt.2017.01.011. Epub 2017 Jan 24.

정 인 숙(In-Sook Jung)

[정회원]



- 1988년 3월 : Graduate School of AUP(Master of Science in Nursing)
- 2004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간호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아동간호, 기초간호과학, 간호교육방법
- E-Mail : irisleejung@naver.com